죽음과 살림의 학문, 생태경제(학)

독립연구자 장 윤 석

0. 여는 말, 먼발치의 은혜

안녕하세요? 故 정태인 선생님을 추모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리고 직접 마주하지 못하고 먼 타지에서 말을 보내게 되어 송구함과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몇 년간의 녹색전환연구소와 녹색당에서의 일을 마치고 쉼과 시간을 가지고자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몬드라곤으로 알려진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아라사테(Arrasate) 지역을 지나 산티아고로 향하고 있습니다. 걸으면서 정태인 선생님이 감수하셨던 '호세 마리아 신부의 생각'[1] 을 읽고 있는데요, 뒤늦게 남기신 발자취를 따라가며 여러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아쉽게도 저는 정태인 선생님과 한 번의 일면식이 없었습니다. 전공으로 경제학을 선택했던 까닭에 방황을 했고, 다른 경제학의 길을 찾을 때 가뭄에 난 비처럼 선생님의 글과 역서를 만나 가르침을 받았던 정도입니다. 선생님께 묻고 싶던 것도 나누고 싶었던 것도 많았지만 인연이 닿지를 않았는데,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아쉬움에 추도사를 남긴 것이 연이 되어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정태인 선생님은 불모지 같은 한국에서 생태-사회적 경제 사상의 선구자로 기억될 것 같고, 언젠가 남기신 글과 저서는 하나의 고전으로 자리 잡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발치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함을 표하고자 정태인 선생님이 남긴 말과 글에 대해 감상과 각주를 아래에 남깁니다.

1. 다른 경제 없이 전환이 될 리가

"이 위기에서 빠져나가려면 경제학, 나아가서 사회과학 전체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른다. 적어도 그런 단순한 학문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하다."[2]

"어느 누구의 배를 빌리지 않고 솟아난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3] 독립 연구자라고 하여 스승도 계보도 없이 외딴섬처럼 떨어져 독립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나아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회와 그 역사 속에서, 넓게는 마시는 물과 숨 쉬는 공기가 있는 지구의 기후와 생태까지,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묻어들어가(Embedded)[4] 있는 존재이겠습니다.

언뜻 자명한 이 사실을 무시한 학문이 있습니다. 경제학, 정확하게는 주류 경제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신고전파(Neo-classical) 경제학입니다. 이 경제학은 인간 종의 불확실성과 비합

---

1)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 2016, 박정훈 옮김, 정태인 감수, 호세 마리아 신부의 생각 -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바이블.
2) 정태인·이수연, 2013, 『협동의 경제학』, 레디앙
3) 황정은, 2010, 백의 그림자, 민음사. 에서 간추려 옴
4)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개념으로 그는 경제가 사회 속에, 사회가 자연 속에 묻어들어가(Embedded)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배태((胚胎), 착근(着根)으로 번역되기도 하나, 이 글에서는 묻어 듦으로 씁니다.

리성, 개인과 개인의 합 이상의 사회의 고유성과 특수성, 모든 토대를 아우르는 공간과 환경이 위치한 생태계에서 제멋대로 독립하고는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이 경제학은 학문 가운데 유독 독보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고, “모든 공공 정책의 모국어일 뿐 아니라, 공공 생활의 언어이며, 사회를 형성하는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좌우”해 왔습니다.[5] 이 경제학은 각종 사회적 지구적 위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여타 조건은 불변한다면(Ceteris paribus)'이라는 전제는 기후위기를 알지도 인정하지도 않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학의 섣부른 가정과 오류들은 만병의 근원이 되어 보이는 바와 같이 다중 위기로 점철된 지금을 만들었습니다.[6]

그 경제학에서 생략되고, 누락되고, 삭제되고, 괄호 쳐진 여러 가지를 복원하고, 되살리고, 만들기 위해서 여러 경제학자들이 계속 분투하고 있고, 이 전쟁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의 혁명은 뿌리는 오래전에 있지만 본격적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1년 월가를 차지하라(Occupy wall street) 운동에서 시작되었는데, 경제학 수업을 박차고 나온 학생들은 ‘경제학의 재사유(Rethinking Economics)’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현재의 문제와 위기들에 적극적인 대응 논리를 펴는 경제학 학문체계를 재편해가고 있습니다.[7] 이들의 시도는 현재 세계 유수의 대학의 경제학과 커리큘럼에 다원주의 경제학 과목을 만들고 관련 연구기관을 만드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2018년 기후·생태위기의 심화가 드러난 이후에는,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끄는 법이 아닌 불을 내는 법만 배우고 있다.”며 경제학 커리큘럼의 급속한 재편이 이뤄지고 있고, 이는 대학 내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학계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학계의 심상치 않은 동태를 살필 때[8], 더는 이 경제학에 주류라는 명칭이 적절치 않을 수 있겠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제학계는 다양성을, 경제 다원주의(economic pluralism)를 잃고 심각히 우편향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학계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해 경제에 미칠 파장 정도 언급하는 것 외에 어떤 선언도 없었고, 어떤 대학의 경제학과에서도 교과서는 변화지 않았습니다. 편향된 경제학계의 풍토가 계속 스스로를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계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경제정책 전반을 좌우하는 경제성장의 카르텔로 이어져 국가와 대기업, 휘하 거버넌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외)의 연합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낡고 시대에 역행하는 그 경제 교육과 학문, 정책의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제학에 독점된 한국의 역사는 경제에 생태와 사회가 잡아먹힌 꼴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성장 신화로 자평 되지만 그 이면에는 자살률로 상징되는 해체 직전의 사회와, 최소한의 회복탄력성조차 비가역적으로 잃어버린 자연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외부화된 환경과 토목 사업의 편익을 잘못 저울질한 비용-편익 분석의 4대강 사업이나, 저평가된 미

---

5) 케이트 레이워스, 2017, 홍기빈 옮김, 도넛경제학, 학고재
6) 신고전파 경제학의 독점적 지위와 그 패착에 대해서는 정태인 선생님을 비롯해 많은 독립 경제학자들이 이미 수없이 설명을 마쳤기에 간단한 참고문헌과 함께 생략합니다. 이수연·정태인, 2013, 협동의 경제학, 레디앙. 마이클 제이콥스, 마리아나 마추카토, 2017, 정태인 옮김,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협동조합(KPIA) 참고.
7) 엥겔베르트 스톡하머 외, 2019, 한성안 역, 리씽킹 이코노믹스, 개마고원. 과 리씽킹 이코노믹스 공식 홈페이지 참고 https://www.rethinkeconomics.org/
8) 202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탄소세 배당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성명」외.

래 세대와 가치의 할인율로 인해 좌초자산의 리스크 평가에 실패한 삼척 등의 마지막 석탄발전소, 항공 산업의 성장 궤도에만 주목한 전국의 신공항 사업 남발 등이 그 예입니다. 한국의 현재를 좌우하는 정책은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 근시안적 정책이거나, 자연 혹은 생태를 팔아 (회색)경제를 살리는 이분법적 정책이거나, 그마저도 노동과 생명을 팔아 체제를 지탱하는 정책입니다. 미래, 자연, 생명을 팔아치운 사회와 경제가 지속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다른 경제학 없이 전환이 될 리가 없습니다.[9)]

생태경제학(Ecological Economics) 또한 이 경제학의 독재에 반하는 맥락에서 페미니즘 경제학, 돌봄 경제학, 행동 경제학, 복잡계 경제학, 협동조합 경제학(사회적 경제) 등 다원주의 경제학들과 함께 태동하여 흘러가고 있고,[10)] 이제야 세계적으로 빛을 보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막 알려진 정도입니다. 한국에서의 생태경제학의 첫 시작은 2000년대 초 우석훈, 김종호, 조영탁, 강수돌 등의 학자들이 세계적으로 1970~90년대 활발해진 논의들을 소개하며 시작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생태경제연구회가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공백기가 생긴 채 명맥이 끊어졌습니다. 생태경제학의 문제의식이 추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여겨질 정도로 시기상조이기도 했겠지만, 어쩌면 우편향된 학계와 기존 담론 지형의 구도가 가진 한계로 벽에 막힌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단된 논의를 다시 끌어올린 것이 2010년대 중순 정태인 선생님을 비롯한 칼폴라니연구소협동조합의 여러 분들인 것 같습니다. 2013년 『협동의 경제학』의 마지막 장에 생태경제학이 제시된 것을 시작으로, 다원주의 경제학의 여러 면을 조명하는 책들이 번역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 아직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태경제이론이 주목받는 것은 시간문제이겠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것도 동반하는 문제입니다. 아직 한국에는 생태경제학을 배우거나 전공할 수 있는 체계와 공간이 없습니다. 소수의 선각자 혹은 학자들이 제시한 이념의 흔적으로서의 생태경제학이 아닌, 분명한 체계와 공간을 가지고 학문으로 연구에 집중하는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몬드라곤의 사회적 경제를 기능시키는 가장 큰 힘을 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기후위기 이후 다음 세상을 만들어 갈 다른 교육을 형성해가는 가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최근 생태경제학자인 요르고스 칼리스(Giorgos Kallis)와 제이슨 힉켈(Jason Hickel)을 필두로 2020년 최초로 바르셀로나 자치대학에 탈성장 대학 프로그램이 설치되었습니다. 커리큘럼은 생태경제학과 정치생태학, 남반구의 관점과 탈식민주의에 기반한 페미니즘과 돌봄경제 인류학이 그 축으로 구성됩니다. 이 교육 과정은 3년 차를 맞은 지금 사전 모집이 마감될 정도로 성화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전환을 위한 다른 교육이 절실하며, 더불어 늘어나고 있는 독립 연구자들을 엮어낼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지식 생태계도 커먼즈(Commons)러면 그 커먼즈를 관리하고 돌보는 이들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경제학을 펼치고 청년에게 자리를 주고자 한 정태인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선결과제는, 다원주의 학문과 다른 경제학이 설 수 있고, 독립연구자들이 살 수 있는 지식생태계를 가꿔가는 일이겠습니다.

---

9) 장윤석, 2021, 다른 경제 없이 전환이 될 리가, 녹색전환연구소 녹색전환공론장 전환경제 발표문

10) 생태경제학은 1971년 니콜라스 조르제스쿠-로겐의 1971년 『엔트로피 법칙과 경제 가정(Entropy Law and Economic Process』를 1972년 『성장의 한계』를 초기의 두 뿌리로 살필 수 있고, 1989년 세계생태경제학회(ISEE)의 창립과 저널 『Ecological Economics』의 발간을 개화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병권, 2023, 기후를 위한 경제학, 착한책가게. 책을 참고

2. 정태인 생태경제 이론과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댓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생태 전환은 역사상의 어떤 '거대한 전환(자본주의의 탄생이건,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건)'보다도 더 커다란 구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11]

정태인 선생님은 어떤 사상이나 어느 학문 분과로 분류할 수 없을 만큼, 경제학이라면 두루 살피고 연해 연결적이고 통합적인 경제 사상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중 10주년을 맞은 『협동의 경제학』의 마지막 장 "경제도 결국 자연 속에 존재한다"에 남긴 실마리를 시작으로 "환경을 위한 연대"를 유언으로 남기시기까지, 생태경제에 대한 이론과 제안을 정리하고 간단한 댓글을 달아보려 합니다.

(1) 생태경제적 통합성과 총체성

먼저 정태인 선생님의 경제사상은 4박자 경제학(시장경제, 공공경제, 사회적경제, 생태경제)으로, 이것은 경제가 어느 하나의 배타적 원리로 독점되는 것이 아닌, 이기성(시장경제), 공공성(공공경제), 상호성(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생태경제)의 조화를 통해 구성되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는 엘리너 오스트롬의 표현으로 다중심 접근, 칼 폴라니의 표현으로 다원주의 접근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12] 이러한 통합적 시야는 생태경제학이 내재하고 있는 학문적 가능성을 잘 보여줍니다. 생태경제학은 환경경제학과는 달리 외부에 위치한 고정되거나 주어진 환경만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경제 영역을 대상으로 자연의 원리에 맞는 방법론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기에 시스템 이론적 접근, 초학제적 접근, 방법론적 다원주의 등을 연구방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태인 선생님이 복잡계 이론과 연구에서 우리가 만들어 갈 대안의 원리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학문과 방법론은, '이것 또는 저것'의 이분법적 논리와 분절적·배타적 학문이 아닌, '이것 그리고 저것'의 연결적 논리와 통합적·시스템적 학문이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와 함께 불평등, 사회적경제, 동북아평화 4가지 주제가 함께 교차되어 논의되는 것이, 정태인 경제사상의 통합적·총체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2) 생태경제와 사회성

그래서 정태인 선생님의 생태경제 이론은 사회성과 현실가능성을 단단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생태경제학은 기존의 경제학이 망각한 지구 단위의 사고를 펼쳐내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생물 물리학적 현실과 근본적인 연관성을 핵심으로 삼아왔지만 경제가 담겨있는 사회와의 연결성은 적절히 다뤄지지 않았다."[13]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칫 생물리

---

11) 정태인, 2019.10.28., 너도 나도 '생태 시민'이 되어야 한다, 한겨레 칼럼.

12) 정태인·이수연, 2013, 『협동의 경제학』, 레디앙. "우리는 또한 폴라니의 다원적 경제론과 오스트롬의 다중심성 원리는 예방우선의 원칙과 함께 생태전환의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스트롬이 강조했듯이 생태문제는 글로벌 차원에 속하므로 국제협약이 가장 중요하지만, 각국의 사회·경제정책, 지역공동체의 참여, 시민의 삶의 방식 변화가 모두 중요하다. 즉 모든 공공 문제 해결의 중심은 원래부터 여러 차원에 존재하고 각각의 정책이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제 첫발을 뗀 이 논의의 최종 목표는 각 차원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가 되어야 한다."

13) 엥겔베르트 스톡하머 외, 2019, 한성안 역, 리씽킹 이코노믹스, 개마고원.

학적 접근에 쏠려 지구 단위의 물리적 사유나 분석에 논의가 치우쳐,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태인 선생님의 생태경제 이론은 늘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환경을 보호하자", "생태계를 되살리는 데 투자하자"와 같은 사회와 독립된 환경·녹색 담론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걸어온 경로와 그 특질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제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생태경제 이론에 기반한 정책과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단단히 뿌리 내린 제안이어야 하고, 이 착근성이 그 성패를 가른다고 생각합니다.

(3) 생태경제의 정치성

이 지점은 녹색 담론들과 행위자들이 자주 부딪히고 마는 벽이자 고민과도 닮아있습니다. 기후과학자들의 경고가 수십 년째 경고로만 그치고 현실에서 작동하는 힘이 없었던 것처럼. 기후가 위기라는 말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경제가 생태계 속에 묻어들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탈성장 담론 또한 사회 변화 전략의 부재와 그 실현력의 미약함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최근에는 비엔나 그룹의 '탈성장의 전략'과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14] 생태경제 이론은 전환의 주체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공허해지기 십상이고, 그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 그리고 정치를 요청합니다.

"전환적 지도자와 정당의 비전, 그리고 장기 시야를 지닌 시민들이 주도하는 거대한 전환이야 말로 우리 아이들의 활로이다."

어떤 학문이든 사상으로서 울림과 파동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긴요함과 실천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인 선생님이 실천적 지식인으로 정당에서 이 문제의식과 제안을 정책화해 온 동시에 한미FTA 반대운동 등 광장에서 활동가로 살아오시며, 이 전환의 전략과 정치를 얼마나 강조해왔는지는 더 부연하지 않아도 충분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생태경제 사상의 한 줄기가 학문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치열한 현안 속 정치 현장에서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이 생태경제 사상의 생명력을 담보하리라는 기대를 잇게 됩니다.

다음으로, 정태인 선생님이 이러한 생태경제 이론에 근거해서 남긴 방향과 정책 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기후위기에서의 국가의 역할, 탄소세를 통한 시장의 통제와 녹색산업, 협력을 통한 경제 원리 재조직과 시민참여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4박자 경제학 중 생태경제는 다른 3가지와 층위의 측면에서 조금 다른데, 정부(1영역), 시장(2섹터), 사회적경제(3섹터)가 경제의 세 기둥을 담당한다면 생태경제는 이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주춧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태경제의 원리에 기반한 정책은 3가지 경제 영역 혹은 주체 모두에게서 조화롭게 고안 및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천 송이 꽃"을 지지하지만 국가가 생태혁신과 생태인프라 투자를 주도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탄소세를 부과하여 시장 행위자들의 다양한 혁신 활동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한 문제(예컨대 전염병)를 해결하는 데 특정 범주(예컨대 국가)가

14) 오스트리아 비엔나 탈성장 그룹, 2021, 탈성장과 전략,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번역.

우월하다고 해서 다른 범주(예컨대 시장이나 공동체)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옳지 않으며 각 범주가 해결해야 할 다양한 역할이 있다는 것이 다중심성의 원리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의 여러 교류양식(폴라니의 용어로는 사회통합양식)이 존재하고 자율적인 재생산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가) 녹색전환에 있어 국가의 역할과 방향

정태인 선생님이 2020년 정의당에서 제안한 「생태전환의 정치경제학 – 탄소세와 한중일 공통 탄소가격을 중심으로」을 살펴보면, 우리가 코로나 펜데믹을 배우며 겪은 교훈을 바탕으로 전환에 있어 국가의 역할과 방향을 주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기후위기의 상관성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생태문제는 "시장의 근원적 한계"이기에, 기존의 안정적인 경제가 깨어진 비상상황에서 시장의 자율조정장치에 의해 작동하리라는 믿음에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정태인 선생님은 *"'방역이 곧 경제'인 것처럼 '생태가 곧 경제'인 시기가 곧 온다. (중략) 극복의 방향도 유사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여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할 전환을 주도해야 함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의 '투자의 사회화' 개념에 기반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부 정책에서 강조되는 재정지출의 확대, 인플레이션 없는 통화 증발, 국채발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하여 네오슘페터리안의 국가혁신체제론과 클러스터정책, 특히 마리아나 마추카토의 국가가 방향을 잡는 기술혁신과 인내 자본에 대한 강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15] 위기에 있어서 유용한 경제학들을 토대로 한 국가의 전환 정책은 다음과 같이 그린뉴딜 정책으로 제안됩니다.

"우선 산업, 건물, 교통의 에너지원을 전기로 바꾸고 최대한 재생가능에너지로 발전해야 한다. 그래도 나오는 쓰레기는 순환경제로 처리한다. 국가는 생태기술의 혁신을 주도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 이렇게 화석 기반 인프라 자체를 바꾸고 시장을 창출하는 대규모 투자는 당분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약 10여년의 전환기에 부여되는 '생태 배당(ecological dividend)'인 셈이다.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이 바로 이런 전략이다."[16]

비록 2021년 한국판 뉴딜 이후 한국형 그린뉴딜이 실패한 녹색성장 정책의 모습으로 좌초되었지만, 2023년 오늘날에도 이 제안은 아직까지 유효하게 남아있겠습니다.

(나) 탄소세를 통한 시장의 통제와 국제적 협력의 가능성

정태인 선생님은 "잘 설계된 탄소 가격은 효율적인 방식으로 배출을 줄이는 전략에서 필요불가결하다"는 조지프 스티클리츠의 이론에 발맞추어 탄소세 정책을 설계합니다. 배출권 거

15) 다만, 다음의 언급과 같이 포스트케인지언 정책이 늘 생태경제적 정책은 아니라는 언급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생태전환과 모순될 수 있다. 생태전환은 소비의 일반적 축소를 요구하며 탄소가 덜 포함된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16) 정태인, 2019.10.28., 너도 나도 '생태 시민'이 되어야 한다, 한겨레 칼럼.

래제도는 그 시장 가격이 정부 목표에 어울리는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에, 넷제로를 달성할 때까지 탄소세의 조정에 의해 계속 높아지는 탄소세를 제안합니다.[17] 이 탄소세는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속도를 가속할 것이고, 이는 화석연료에 의한 보조금의 전액 삭감을 전제로 하며, 강한 탄소세는 시장에서의 전환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제안되는 탄소 가격은 니콜라스 스턴과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견해에 바탕을 두고, 톤당 50달러에서 시작해서 2030년 75달러, 2050년까지 톤당 125 달러입니다. 역설적이게도 IMF의 분석에 의해서 비용편익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탄소가격은 75달러에서 후생이 극대화되고, 정태인 선생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공통의 탄소가격과 한국의 효율적 탄소가격이 일치한 건 분명히 우연이다. 하지만 이 분석들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행운이기도 하다. 지구 전체를 위한 의무 이행이 곧 국가의 효율성도 최고로 높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8]

시장주의적 경제학이 만들어낸 폐해로 인해 시장에서의 전환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유의미한 현실적 경제 전환을 만들 수 없다는 지적이 인상에 남습니다. 지구 전체의 의무 이행과 국가와 시장의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전환 정책의 주요한 과제이겠습니다.

정태인 선생님은 나아가 한중일 동북아 공동의 탄소가격을 설정하자는 제안[19]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한·중·일 공통의 탄소가격은 생태전환을 돕는 유력한 제도"라고 말하며, "이들 세 나라의 공통 탄소가격은 그 자체로 탄소 배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며 EU 등의 '생태클럽'과 경쟁하게 되면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는 분석을 이었습니다.

"세 나라의 거대한 외환보유고(약 4조 5천억 달러)와 탄소세수 중 일부를 탄소배출량에 비례해서 생태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이 기금은 미세먼지, 황사 대책, 팬데믹 대처 등 공동정책, 공동의 생태기술 혁신(예컨대 신소재 배터리 기술), 역내 지역의 구조조정 보조, 탄소클럽에 들어오려는 발전도상국에 대한 보조에 사용될 것이다. (중략) 동북아 그리드는 북한 경제의 에너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 1차 핵협상 당시의 경수로 건설과 비교해 보면 수퍼그리드에 의한 에너지 문제 해결이 얼마나 획기적이고 얼마나 강력한 "비핵화" 유인이 될 수 있을지 짐작할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장차 동아시아의 생산연쇄를 이루는 주요국들을 모두 포함한다면 이 탄소클럽의 성과는 곧 기후위기의 대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20]

이처럼 한·중·일 탄소가격 정책은 동아시아의 녹색평화전환을 위한 경제협력의 가능성으로 확장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공동의 자원 관리와 생태계 관리, 경제적 역할과 권역을 공유하던 것처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경제 정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17) 정태인, 2019.12.23.,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시대, 한겨레 칼럼.
18) 정태인, 2020.3.31, 생태전환의 정치경제학 – 탄소세와 한중일 공통 탄소가격을 중심으로, 정의당
19) 정태인, 2020.1.20., 한·중·일 공통 탄소가격, 한겨레 칼럼.
20) 정태인, 2020.3.31, 생태전환의 정치경제학 – 탄소세와 한중일 공통 탄소가격을 중심으로, 정의당

(다) 협력을 통한 경제 원리 재조직과 시민참여

정태인 선생님의 그린뉴딜 안에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고민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시장이 길이 들면, 남은 전부는 '세 번째 기둥'이자 '천 개의 꽃'인 사회적 경제와 시민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정태인 선생님은 그린뉴딜에 있어 사회적경제의 중심 지역 중 하나인 에밀리아 로마냐의 사례를 참조합니다.

"그린뉴딜은 특히 중소기업 위주의 혁신 클러스터를 지원한다. 농업과 수공업 제품 위주의 "산업지구"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첨단산업 산업지구(클러스터)로 발전한 에밀리아 로마냐 모델은 우리의 생태전환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21]

비단 먼 나라의 사례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정태인 선생님을 통해 평소 존경하셨다는 한국의 1세대 진보 경제학자 박현채 선생님의 민족경제론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민중과 작은 기업, 농업 등을 기반으로 하는 이 이론은 한국 사회가 수출 주도의 추출적 경제 형태로 들어서기 이전에 가능했던 하나의 전환 경로였을 것입니다. 협력을 통한 경제 원리의 재조직은 우리에게도 이어왔고, 우리에게도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뉴딜은 새로운 "좋은 삶"의 유형을 형성하는 과정(ecological way of Life)이다. (중략) 새로 탄생한 시민은 더 이상 성장에 목을 매고 인류 공유의 커먼즈를 침해하여 우리 모두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22]

정태인 선생님은 녹색의 가능성을 과거를 넘어 미래에서 찾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생태시티즌쉽(Ecological Citizenship)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민상과 좋은 삶의 유형을 형성하는 과정이 정태인 선생님이 그리던 전환의 주된 토대였음을 상기합니다.

3. 생태경제학의 논의와 과제들

이어서는 정태인 선생님이 남기신 글들을 읽으며 일어났던, 생태경제학을 바탕으로 한 논의와 과제들을 네 가지로 정리해서 풀어가려 합니다.

(1) 세계관: 탈성장과 전환지표

생태경제학의 세계관은 한 장의 그림에서 잘 드러납니다. 경제계가 사회와 자연(생태계와 기후 그리고 지구 행성과 태양계)에 묻어들어가 있다는 세계관에서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생태경제학 세계관의 두 가지 뿌리를 찾아볼 때 먼저 1971년 『엔트로피 법칙과 경제 가정(Entropy Law and Economic Process)』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열역학 2법칙을 바탕으로 경제계가 물질 흐름과 그 유용성의 감소 원리를 따르고, 인간의 경제활동 역시 자연법

21) 정태인, 2020.3.31, 생태전환의 정치경제학 – 탄소세와 한중일 공통 탄소가격을 중심으로, 정의당
22) 정태인, 2020.3.31, 생태전환의 정치경제학 – 탄소세와 한중일 공통 탄소가격을 중심으로, 정의당

칙을 거스를 수 없고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제약은 자연법칙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1972년 『성장의 한계(Limit of Growth)』에서는 유한한 지구에서 물리적 규모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현재 인간의 경제 규모(경제성장 규모와 속도)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추이로 제한하고 그 관성에서 벗어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생태경제학은 탈성장 담론 및 운동과 같은 문제의식과 상황에 서 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탈성장 철학에서는 구 세계관의 파괴와 재형성을 중요시하는데 이는 프랑스 철학자 세르주 라투슈와 그리스 철학자 코르넬리우스 카스토리아디스(Cornelius Castoriadis) '상상계의 탈식민화' 개념에서 잘 드러납니다.[23]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은 기존의 경제 시스템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자리 잡은 빈곤하고 식민화된 상상력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자초한 문제는 이를 야기한 사고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 여기에는 경제성장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만능열쇠라는 신화를 포함하여, 시스템적이지 않은 직선적 사고관과, 우상향을 진보로 파악해 온 관성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이 생태경제학의 세계관은 기존의 구 경제학이 -철학적 중립성 및 객관성을 견지하고 있다고 가정한 채 독점한-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성장 세계관을 갈아치울 것을 담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모든 존재론, 논리학, 방법론,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혁명 역시 요구하며, 정책의 시간관을 미래 사회의 효용과 위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르게 구성하고, 정책의 시야와 공간을 확장해 지구-사회-경제를 "단일한 복합 사회-생태로 이해하며, 기존 정책이 체제 유지적으로 기성 사회 질서를 보존하지 않도록 기후정의의 원리와 현재 위기의 수준을 반영한 급진적 정책관이 필요합니다.[24]

이러한 정책의 전환은 지표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정책에서 세계관을 담당하는 것은 지표의 영역이고, 지표는 평가의 기준 및 잣대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틀(Frame)을 제작하는 까닭입니다. 이미 GDP라는 잘못된 예시를 통해 지표가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유독 경제학의 다른 학문들 중에서 서로 다른 분과들 중에서 힘을 얻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겠습니다). 지표가 사회의 상상계를 설정하는 힘을 간과하지 않고, 전환을 위해서 다른 지표의 설정과 적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찍이 이 맥락과 함께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행복지표(Happinees Index) 등이 논의되었고, 기후·생물다양성 위기의 심화와 관련하여 지구위험한계지표(Planetary Boundary), IPCC 기후영향지표(Climatic Impact Drivers, CIDs)가 제시되었으며, 오늘날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등에 적용된 도넛(Doughnut) 지표 등이 실질적인 기능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태 문제를 집약해서 보여주는 지표를 아직 찾지 못했다. (중략) 개인, 지역공동체, 국가, 그리고 글로벌 사회가 구체적인 실천을 하려면 이런 생태지표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25]

---

23) 세르주 라투슈 외(2018), 강이현 옮김, 『탈성장 개념어 사전』 그물코,

24) 정책이 서 있는 배경 및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정책 분석 이전 단계의 시야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의 틀(Frame)개념이 대표적으로, 어떤 시야, 세계관, 패러다임, 틀이 분석 이전 단계에 존재합니다. '세계관'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 사회학자 카를 만하임(Karl Mannheim)의 말처럼 "모든 관점에는 이를 탄생시킨 독특한 상황이 있다." 기후위기 라는 독특한 상황은 이전과는 다른 관점을 정책에 탄생시켜야 합니다.

기후·생태 복합위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왜), 생태와 사회 경제의 전환을 목적하고(무엇을), 전환에 필요한 모든 영역과 지표를 배열하고 합산하여 형태화(어떻게), 민주적으로 행정 및 경제 단위를 포함해 살아가는 시민 모두(누가), 온실가스 배출제로의 미래 시점을 고려(언제), 국가 및 지방 행정 단위를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어디서) 전환지표의 제작과 적용이 필요합니다.[26]

(2) 가치와 방법: 화폐에서 엔트로피로, 생태학살 법과 예방우선의 원칙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경제 시스템은 중요한 두 가지 흐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생산과 소비를 통해 가격이 재생산되는 화폐의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경제활동 자체의 기반으로 생태계에서 경제계로 투입되어 물질이 재생산되는 엔트로피의 흐름이다. 즉, 경제 시스템은 우주라는 닫힌 계 안에 존재하는 열린 계다."

현대 경제에서 재화 혹은 서비스의 가치는 화폐로 측정되지만 – 그 화폐도 다양성이 자리잡지 않고 달러의 패권에 독점된 – 화폐는 국가 및 사회의 신뢰(신용)이 없다면 휴지 조각이고, '가치'는 그 재화와 서비스 혹은 에너지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태경제학은 화폐의 흐름보다 물질의 흐름이 더 근본적이라 보고, 따라서 화폐의 가치보다 그 물리적 유용성의 정도에 따른 엔트로피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경제의 단위를 화폐에서 물리적 가치와 (나아가) 사회적 가치로 바꾸는 과정은 앞서 살핀 GDP에서 다양한 전환지표로 향하는 과정과 궤를 같이합니다. 이것은 생태경제학의 방법론에 적용되어, 물질흐름분석(MFA, Material Flow Analysis)과 같이 화폐로 측정되기 이전에 물질의 총량과 흐름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가치론과 방법론은 많은 것을 다르게 사유할 수 있게 합니다. 예컨대 4대강 사업에 있었던 환경영향평가와 비용편익분석에서 강의 화폐적 효용을 (평가절하해서) 계산한 것이 아닌, 강과 인근 생태계 순환이 가진 가치를 살필 수 있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물을 수 있겠습니다.

"자연에서 흔히 관찰되는 복잡계 현상을 비용편익 분석이라는 원시적 수단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에 속하는 일인지 모른다."[27]

이는 생태경제학의 윤리학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남깁니다. 화폐적 관점으로 결정되었던 수많은 '사업'들이 기후위기 시대에도 유효할까요. 더 이상 많은 경제적 '사업'들이 이전과 같은 법적 테두리와 규제하에서 존속할 수 없습니다. 법적 전환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 생태학살(Ecocide)[28] 법의 동태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 정부가 마지막 석탄

25) 정태인·이수연, 2013, 『협동의 경제학』, 레디앙.
26) 장윤석, 2022, 한국의 전환지표: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 현주소와 녹색전환 정책 분석, 한국환경사회학회 2022년 정기가을학술대회 발표문
27) 정태인·이수연, 2013, 협덩의 경제학, 레디앙
28) 2021년 생태 학살의 법적 정의를 위한 독립적 전문가 패널 (Independent Expert Panel for the Legal Definition of Ecocide)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생태학살을 로마규정에 따른 다섯 번째 범죄로 등재시키기 위한 법안 초안을 발표했고 이를 기점으로 세계적으로 녹색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조효제, 2022,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창비. 참고

발전소로 수출해 지금까지 지어지고 있는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소의 경우 재정 위기에 처한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지빌리티)를 살리고,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를 해결할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29] 그러나 석탄발전소가 완공될 2030년에도 이 석탄발전소가 한국과 베트남에 돈을 벌어줄 사업으로 불릴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태학살의 정의는 "생태학살은 불법적(unlawful)이거나 악의적(wanton)인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환경(environment)에 심각한(severe) 동시에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인 손상(either widespread or long-term damage)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행해지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해당 석탄발전소는 이러한 정의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화폐적 사고방식에서 결정한 사업이 사람을 포함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생태학살이라면 이는 큰 윤리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일단 지금 중요한 것은 예방 우선의 원칙이고, (중략) 생길 수 있는 모든 위험은 일단 예방하는 것이 상책"이겠습니다.[30] 생태경제학은 그간 화폐적 사고의 폐단에서 평가 절하되거나 제외된 수많은 요소들을 재사유할 문제 의식을 갖추고 있으며, 다가오는 사회의 법과 문화 속에 경제가 생태를 잡아먹는 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문 윤리를 재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전환상: 사회적경제와 세 번째 기둥

"생태문명을 위한 경제 체제는 지구의 수용 능력 안에서 운용되는 생태적 경제가 되어야 한다. 무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주의 대신 경제생활의 목적과 가치가 반영된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과 경제 조직, 그리고 새로운 경제 주체를 만들어내고 경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유무형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것은 재생에너지와 농업, 교통과 휴먼 서비스를 중심으로 분권화된 지역들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구축이 될 것이다."[31]

생태경제학이 유용한 학문 정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전환의 풍경을 만들어가려면 이러한 공생의 원리로 작동하는 세계 여러 지역과 마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수히 많은 사례들을 발굴하여 연결하고 해석하는 작업들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세계 각지에는 생태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조화를 이룬 공간들이 여럿 있고, 여기에서 생태경제와 사회적경제의 연결 지점이 드러납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선,s 사회적 경제를 생태적·사회적·공동체적 목표가 하나로 수렴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모델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생태경제 모델의 많은 경우는 사회연대경제의 모습 안에 포함될 수 있는데, 사회 안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공유지의 비극을 막고 공동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생태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연관성 혹은 유사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먼저 지역성을 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뿌리내리고 움직이는 지역경제는, 초국적 규모로 수탈적 형태를

29) 장윤석·황준서·이다예·황인철, 2021, 「국내 석탄 기업에 기후위기의 책임을 묻다」, 녹색연합
30) 정태인·이수연, 2013, 협동의 경제학, 레디앙
31) 정건화, 2018, 생태문명으로의 전환과 사회적경제, icoop 생협평론 2018 여름 31호

띠는 기업과는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방식의 경제조직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이동거리와 에너지 사용량 절감 등 저감 면에서 여러 유리함을 가지고 있고, 적응 면에서 가뭄이 들면 물을 분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생물적 조건과 한계를 감안하고 재난 대응과 이후의 회복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생태와 사회에는 공간, 어떤 구체적인 지역이 필요한데 (자본주의적) 시장에는 공간이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모든 행동이 지역적으로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하여 지역에서 무너졌던 신뢰를 회복하여 사회적 응집력을 모아내는 방식으로의 사회연대 전환 경로는,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증진하는 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모습의 사례가 제안되고 있는데, 미국 클리블랜턴과 영국 프레스턴처럼 '모두를 위한 경제(Democratic Economy)'[32]모델이나,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생태적 가치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스페인 몬드라곤, 캐나다 퀘벡,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등 사회연대경제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지역들을 살필 수 있겠습니다.

(4) 유념: 평화

전쟁이 더 이상 낯선 소식이 아니게 된, 슬픈 표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일반 경제 이론은 평화를 전제로 합니다. 생사가 움직이는 전시 상황에서 어떤 경제 이론도 순탄히 작동할 수 없습니다. 확전은 공멸입니다. 이것은 기후위기 대응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2022년 3월 빚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파리협정 이후 구축한 전 지구적 탄소감축 거버넌스가 크게 흔들린 것이 가까운 예겠습니다. 기후위기가 각 지역의 물과 식량 등 경제의 토대에 리스크를 발생시키고, 이것이 경제 공급망과 회랑으로 연결된 지역들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전파되거나 위기를 중첩하는 식의 위험은 잘 밝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경제학의 모든 정책 수단이 효과적으로 전환 정책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안보 위험을 관리하고 국가 및 지역 간 갈등을 전환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겠습니다. 일찍이 생태경제학자 허먼 데일리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냉전 시대와 같이 군비경쟁에 한정된 자원과 힘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군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전환의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근래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난국에 놓이고,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전운이 감도는 얼어붙은 시기를 직면하고 있을 때,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전환을 위한 전제가 이 지역 동북아의 평화임을 유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은 군사비용이 세계 10위 권 안에 달하고, 50조 이상에 달하는 이 예산이 기후 대응 예산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상기할 때, 전환 예산의 가장 주된 출처는 군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점차 수출 항목과 양에서 무기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고, 이제는 탄소중립 총알과 같이 군사 분야의 그린워싱도 눈에 띄는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전쟁 위험을 통한 통치와 그 과정에서의 이익으로 운영되는 경제는 필경 모두를 자멸로 이끌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그 비극이 멈추기 전까지 전환은 없을 것이고, 그때는 골든타임의 논의가 아니라 죽어버린 것들에 대한 소생과 회복 말고는 어떤 것도 살필 수 없을 것입니다.

32) 마조리 켈리 외, 2021, 홍기빈 역, 『모두를 위한 경제』, 학고재

평화 구축을 위한 경제적 협력에는 여러 가지 안이 있고, 한·중·일의 공동 탄소가격과 녹색 협력도 그 예일 테이고, DMZ의 생태적 공동 관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그린 데탕트 등 실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많겠습니다. 티모시 모튼(Timothy Morton)에 의하면 "생태적 사상은 상호연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라고, 평화는 복합적 관계망을 이해하고 실현할 때 살아난다 합니다. 생태를 생각하는 것이 평화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습니다. 평화는 불신과 적대적 위기를 키워가는 이들에게는 오지 않고, 예비하고 바라는 이들에게 오는 것이니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대량 살상이야말로 극도의 외부성입니다. 다 죽으면 나 혼자 돈이 많거나 능력이 많아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중략) 이렇게 강력한 외부성은 언제나 가변적인 국가가 아니라 숙고하는 민주주의 공동체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33]

4. 죽음과 살림의 학문[34]

경제가 생태를 잡아먹은 꼴의 지나온 역사를 넘어, 생태와 경제의 관계 회복이 우리 앞에 과제로 놓여있습니다. 경제(Economy)와 생태(Ecology)는 공동의 집과 관리를 뜻하는 라틴어 오이코노모스(οἰκονόμος)에 언어적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인간의 살림살이'냐, 생태계의 살림살이냐의 차이로, 무언가 먹고사는 순환의 과정으로서의 '살림살이'라는 점을 공유하고 있겠습니다. 그런즉, 생태와 경제를 동의어로 살펴볼 수 있고, Ecological Economics를 우리말로 풀 때 생태경제학이라는 직역 말고도 (인간과 자연의) 살림학과 같이 순화하여 의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제학은 일반적인 교과서에서 "사회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되지만, 한자 경제(經濟)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약자로, 세상을 다스리고 국민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의 협소한 정의를 벗어나 공동의 집을 관리하는 살림살이의 학문으로 재설정 될 때 기후위기를 초래한 학문에서 살리는 학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톺아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한살림을 만들었던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나락 한 알 속에 우주가 있다'는 말처럼 작고 큰 것이 따로 없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생태라 일렀습니다. 이에 바탕할 때 상시 변하는 것들의 관계를 다루는 생태학(Ecology)은 연결의 학문이자, 동시에 생태주의(Ecology)로서 생태계의 질서이자 이 질서를 회복하는 운동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펠릭스 가타리는 『세 가지 생태학』에서 생태를 마음생태, 사회생태, 자연생태로 나눠 부르며 우리가 얽혀있는 다양한 층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35]

---

33) 이수연·정태인, 2013, 협동의 경제학, 레디앙.

34) 장윤석·이희연·송지용, [다시개벽선언문] 개벽, 살림, 풍류의 한국학, 한국문화인류학회 2022 정기가을학술대회 발표문

35) 펠릭스 가타리, 2003, 윤수종 옮김, 세 가지 생태학, 동문선. "'자연 생태'라고 언급되었던 환경관리주의는 환경 보전과 보존, 기업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의 움직임을 의미한다. '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생태라는 말이 담고 있는 맥락입니다. 실제 사회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사회(Society, 社會)라는 개념은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공기처럼 인지되지 못한 채 함께 있던 사회가 악마의 맷돌이 굴러가는 근대 자본주의 질서의 폭력적 제도화로 해체되고 나서야 비로소 발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사회가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는 사실은 생명으로서의 사회를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생태 또한 마찬가지인데, 근대적인 거대한 전환이 이뤄지기 이전의 많은 토착적 사회에서는 수십 개의 바람과 별을 지칭하는 말은 있었지만, 환경과 생태 자체를 독립하여 설정하고 설명하는 말은 없었다고 합니다.[36] 파괴되고 나서야 발견된 것들의 역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태경제학, 살림학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공기처럼 존재하던 생태와 경제의 붕괴가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기후위기의 심화는 녹색전환 담론을 요청하고, 생태학살(Ecocide)과 같은 비극적 사태는 급격한 전환의 바탕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성장의 정점을 찍고, 잔치가 끝나버린 채, 찾아오는 후폭풍과 내리막길을 마주할 지금에 와서 생태경제학이 논해지는 것이 지니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가져다주는 시사점은, 죽어가고 죽어버린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것에 대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지구 속에서 태동한 학문이 지니는 살리는 힘, 그 지향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미증유의 사태가 미증유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힘과 역설적 상상력에 대한 고민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관계와 살림은 생명의 이야기겠습니다. 태어나 죽는 생명의 본질에 기반을 두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다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정태인 선생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녹색은 생명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생명과 관련된 모든 제도를 생명의 만개에 맞춰서 재설계해야 합니다. 모든 제도의 목표는 생명입니다. 자연과 그 부속물인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한껏 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녹색혁명당 최고의 가치입니다.”

5. 맺는 말, 선생에게 받고 후생에게 전하는 마음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내주자”고 청년들에게 손길과 자리를 내어주신 귀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응답하여 노년에 대한 생각을 잇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리고 자주 태어나 죽어간다는 사실을 잊고 늙어가는 것에 당황하고 어색해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유해한 구조 속에 무해한 개인이 있을 수 없듯이, 성장이 당연

사회 생태'라고 언급되었던 사회생태주의는 사회 변혁과 과학기술의 재전유를 추구하는 움직임이다. '마음 생태'라고 언급되었던 근본생태주의는 생명 파괴적인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삶의 변화를 추구하며 생태 영성에 따른 대안적 삶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다. 이 세 가지 영역은 주체성의 문제, 사회적 관계의 문제, 자연과 인간의 관계의 문제 등을 각각 의미한다. 신승철, 2011, “아, 지금이야말로 녹색당이 필요한 때다!”, 프레시안. 참고

36) 윤홍기, 2011, 땅의 마음, 사이언스 북스.

하고 익숙해진 것은 한국 사회와 경제뿐 아니라 그 속에 묻어든 우리 모두이겠지요. 그런 점에서 탈성장은 앞만 보고 영원할 듯 살아가던 관성의 벗어남, 나 자신의 전환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죽음을 다시 중심에 위치시키는 것 같습니다. 정태인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온라인 공간에 남기신 여러 메시지들을 기억합니다. 읽을 때마다 잊고 있던 죽음에 대해서 차차 상기했습니다. 앎은 앓음이라고, 투병 과정의 앓음이 실제로 펜데믹과 여타의 위기로 투병 중인 사회의 여러 아픈 손가락까지 닿는 것을 보았습니다. 독립연구자는 “나는 왜 학문을 하는가”라는 화두를 끝까지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학문을 고민하고 이어가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잊었던 이 화두를 다시 마주하게 되던 것 같습니다.

정태인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후 생태경제학자 허먼 데일리(Herman Daly)도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분의 팔순잔치에 온라인으로나마 참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세 시경 홀로 연구소에서 밤을 지새고 들어간 온라인 공간에는 전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라기에는 너무나 온화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후위기의 심각함에 대해 진지하게 재차 언급하기도, 기존 경제학계와 기구들의 몰상식함과 그럼에도 이어지고 있는 –예컨대 도넛 경제학을 제시한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 같은 후학들의 선전과 가능성 등을 단호하고도 힘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달아 어두운 기후 보고서들이 나오며 다소 우울함이 짙었는데 50년이 넘게 싸우고 만들어 온 노학자의 힘 서린 목소리에 힘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에 남았던 건 그 분위기였는데, 낡은 안락의자와 책상 사이로 정원이 보이는 창이 있었고, 서로 축하의 말과 인사를 건네는 친구와 동료 노인들을 보면서 그가 홀로가 아닌 서로인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고를 들었을 때, 한 명의 존경스러운 사람이 좋은 사람들 곁에서 편히 눈을 감았겠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던 것도 같습니다.

부러움과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자주, 한국에서 늙어간다는 것은 참 어렵다 싶습니다. 이는 장혜영 님의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37] 노랫말이 우리들의 화두이자 구호가 된 것처럼 몇 명의 고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래되어서 귀한 것을 오래되었다고 모두 버리는’, 새것을 쫓고 오래된 것을 경시하는 한국 사회의 관성이 사람이라고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발언할 기회와 경제적 바탕, 권력을 나눈 자리뿐 아니라 잘 늙어갈 수 있다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직접적인 교육보다 그들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이 점에서 사회적 상속과 새로운 노년상을 만들고자 애쓰시는 ‘60+ 기후행동’의 여러 동지이자 선생께 감사한 바가 큽니다. 실천하고, 배우고 익히며, 서로 나누고, 연대하여, 표현하고 향유하는 노년에 대한 신노년 선언[38]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을 내고 있고, 함께 따라가고 싶은 길입니다. 정태인 선생님과 이 자리도 그 취지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협동조합을 비롯하여 선생님이 뿌리신 씨알들이 잘 자라나고 잘 늙어갔으면 합니다. 제가 늙어서 눈을 감을 즈음에는, 2050년을 넘어선 시간들이 공포와 재난으로 가득하지만은 않기를 바라고, 설령 그렇더라도 그 위기를 웃으며 헤쳐갈 사람들과 관계들의 생태계가 풍요롭게 있기를 바라고, 가꿔가야겠습니다.

---

37) 장혜영, 2018,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노랫말 중
38) 60+ 기후행동, 2023.10.6, 신노년 선언.

마지막으로 제게 손길과 자리를 내어주시고, 공동체를 가꾸는 법과, 생태와 경제에 대해서 알려주신 다른 스승은 생태적지혜연구소 소장 신승철 선생님이십니다. 몇 달 전 갑작스레 세상을 뜨시면서 주신 은혜를 갚을 길이 막연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 그 자체가 생태적 지혜인 분이셨는데, 한국에서 독립 연구자들의 공간을 꾸리는 것의 어려움을 토로하시면서도, 내일 세상을 떠도 후회 한 점 남지 않을 것 같다고 환한 미소를 남기시기도 했네요. 우리 사회가 첩첩산중의 길목에 있더라도 희망과 가능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건 이처럼 먼저 험난한 길을 걸으며 품어주고 돌아보고 내어준 선생(先生) 덕이겠습니다. 후생(後生)으로 그 은혜 새기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언젠가 제가 받은 만큼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고하신 정태인 선생님께 깊은 애도와 감사를 다시 전합니다.

정성과 평화를 담아
윤석 드림

별첨. [추도사] 정태인 선생님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고 가상 공간에 조의를 표하는 것으로는 떠나지 않는 마음이 있어서, 선생님과는 한 번의 일면식이 없었지만 여러 책을 통해 받은 은혜가 있기에 이렇게 씁니다. 요새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바닥에 계신 분들을 지나쳐 기차를 기다리며 역의 라면가격이 6,500원인 걸 보고 죽으라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월세가 10만 원, 옆 친구는 이자가 10만 원 늘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며 빚 내서 버티라던 정부의 기조대로 가계부채가 엄청납니다. 소득 불평등, 그리고 그보다 더하게 자산 불평등 심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렸고, 저소득 가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대부 플랫폼에서 소액대출 비중이 많아졌다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용 한은 총재에게 질문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예상하셨던 비극입니다. 이번 선거들에서 봤듯이 기후와 환경은 삶이 팍팍한 우리들에게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해체 직전의 사회에서 전환을 이야기하는 게 참 덧없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다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공을 정한다면 생태경제학이 될텐데 한국에서는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먼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길을 걸어간 선배 학자에게 감사함이 큽니다. 정건화, 유철규 선생님 소개로 이른 나이에 '협동의 경제학'을 읽을 수 있어서 돌아가지 않고 분명히 갈 수 있었습니다. 정태인 선생님은, 편향된 경제학이란 독점 시장을 떠나, 대안(혹은 이단) 경제학의 여러 흐름을 가리지 않고 소화해 한국 사회에 적용해보았던 학자로 생각합니다. 복지/후생의 경제와 사회적경제, 그리고 지금의 기후/생태 경제학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융합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시장, 제3의 공동의 길(Commons) 모두 정태인의 경제학에는 역할과 책임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선생님께서 경제사가, 경제사상가, 경제정책가 사이에서 연구와 활동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사회 정치 경제 조건에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급진적 이론과 담론 생산이라는 기본적 역할 외에도, 한국사의 맥락에서의 적용 혹은 변환과 현재 경제에 필요한 정책화 및 제시가 필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한국의 진보 경제학자들이 가진 실천성에 늘 이끌리고 이어갑니다. 한국 대학들과 학계는 이 급진성, 근본성을 담을 그릇이 안되어서인지 좋은 경제학자들은 늘 '독립연구자'의 소갯말을 걸고 광장과 서재 어딘가에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두문불출하는 독립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보면서 참 많이도 배워갔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변방일까요, 지식이 커먼즈가 된 것 같아 좋으면서도 이런 난국에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 서럽습니다. 기후위기는 분명 경제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것 같은데, 케이트 레이워스, 마리아나 마추카토, 팀 잭슨, 제이슨 힉켈, 요르고르 칼라스 등 다른 판이 충분히, 그리고 급진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 경제는 답이 없는 것일까요. 찾아뵐 수 있었다면 이걸 여쭈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떠나보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습니다. 김종철 선생님이 떠나시고 한국의 생태사상, 김지하 선생님 이후 한국의 생명사상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가고 나서야 그 발자취가 얼마나 귀했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Economy를 경제가 아니라 살림으로 번역하고고 싶습니다. 그래야 Ecology와 공유하고 있는 뿌리가 살아납니다. 생명과 협동의 의미와 지향을 담아 경제학을 재정의할 때 살림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가야 할 것들이 아주 많은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들을 언젠가 저의 후학에게 전할 날이 오겠지요. 아마 2050년이 훌쩍 지난 때일 때, 제가 (그 때는 주류가 되었을) 한국의 생태-사회적

경제 사상의 선구자로 선생님과 고전이 된 책을 건네주는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먼저 길을 걸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2022.10.21
장윤석